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展 미술교과서, 시대 반영 · 조망하는 시각이미지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 전을 개최한다.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은 미술교과서를 통해 근대 미술교육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왔는지 그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회다.

자료제공 |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에서는 1909년 대한제국 학부에서 발행한 한국 최초의 미술교과서인 '도화임본'에서부터 현재 검인정 교과서까지 모두 210여점의 교과서가 전시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교과서를 통해 한국에서 근대적 미술교육이 어떻게 형성됐으며, 혼란기를 거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교과서에 구현된 다양한 삽화자료를 통해 당대의 시각문화를 선도하고 반영했던 시각자료로서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미술교과서를 통해 본 근대 시각 문화
문헌자료나 간행물 등은 필연적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한다. 한국 근현대시기 미술교과서는 당대의 굴곡진 정치, 사회, 문화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새롭게 도입된 학교체계에서 근대시각문화의 일면을 형성하는 주요 시각자료이기도 하다. '한국근현대미술교과서'전은 미술교과서가 단순한 교육자료가 아니라, 당대의 시각체계와 시대적 의미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각자료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대별 교과서 선별해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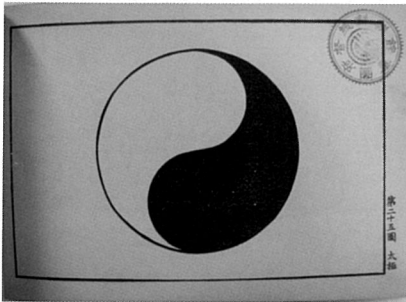
전시에는 개항기 새로운 학교체계가 도입된 초기의 교과서를 비롯해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교과서, 일본 문부성 발간의 교과서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또한 해방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의 시대별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문교부, 미술교재연구회 및 각 출판사에서 발간된 시대별 교과서 자료를 선별해 전시했다. 나아가 교과서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삽

화이미지를 추출해 시대 흐름에 따라 삽화 이미지도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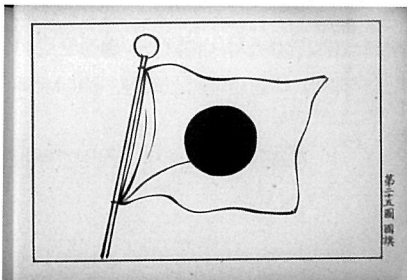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관계자는 "미술교과서를 통해서 우리나라 미술교육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시대적 변천사를 개관해 보는 이번 전시는 한국 근현대 미술교육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당대의 미술교육에 대한 주요 논의와 교육이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로써 우리 미술현상과 미술교육의 지형도를 고스란히 반영하는 출처로서 교과서를 조망하고 큰 흐름을 되짚어 보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총 210여점의 주요 교과서가 전시되고 있으며, 국립중앙도서관, 삼성출판박물관,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자료도 함께 전시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국체(國體)변화 따른 교과서 내용 변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정교과서는 1907년 대한 제국기 학부(學部)에서 발행한 '도화임본(圖畫臨本)'이다. 이 책에는 근대국가를 상징하는 '태극(太極)' 문양이 수록돼 있다. 그러나 불과 3년 뒤인 1910년 강제한일합병 이후 조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정정 도화임본(訂正 圖畫臨本)'에는 학부발행의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만 딱 1개의 삽화만 정정된다. 국체를 상징하는 '태극' 삽화가 '국기(國旗)'라는 명칭의 일장기 삽화로 바뀐 것이다. 자주국에서 식민지로 전락한 국격(國格)의 상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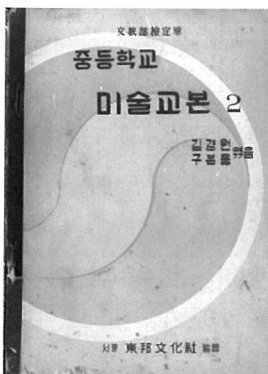


1907년 발행한 도화임본(圖畫臨本) 중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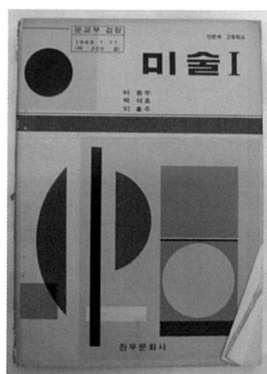


1916년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정정' 보통학교생도용 도화임본(圖畫臨本) 중 일부. 강제 한일합병 이후 태극 삽화가 일장기로 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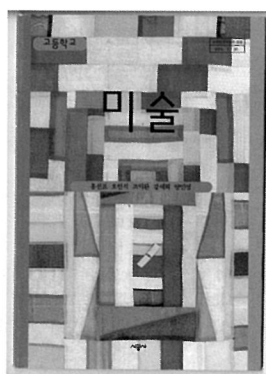
시대별 미술교과서



1950년 중등학교 미술교과서



1972년 인문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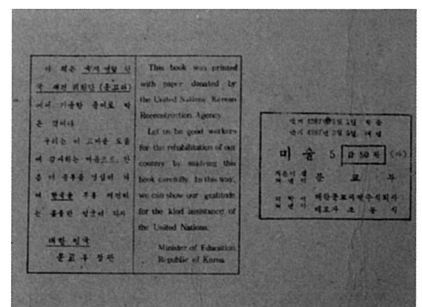


2005년 고등학교 미술교과서



1952년 발행된 교과서에는 시가전을 벌이거나 강을 건너 돌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혼란한 시대 상황에서도 교과서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우는데 일조했다. 또한 '미술과 그림6' (1955)에서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세계를 향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는 '세계전도' 삽화라든지, 유명화가들의 명화 이미지들이 사용되는 한편, 데생실력을 위한 단계별 과정이 실리는 등 세계미술교육의 수준을 향한 교육열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한편 한국전쟁 이후 부족한 물자상황을 반영하듯 '미술과 그림5' (1954)는 국제연합 한국재건 위원단에서 기증한 종이로 교과서가 제작되기도 했다. ↻



1954년 발행된 국제연합지원도서

보고 베끼기, 근대 미술교육 기본으로 채택

임본(臨本)은 말 그대로 그대로 보고 베껴 그리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근대기 미술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내용으로 채택돼 활용됐다. 이러한 활동에 중점을 둔 것이 '도화임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임본'에 강조를 둔 교과서는 색채를 사용하지 않고 선으로 구성된 비교적 간단한 삽화가 사용되고 있으며, 현대의 라인 드로잉(line drawing)을 습득하기 위한 교재다.

반면, 근대미술교육에서 화첩(畫帖)은 색채를 사용하는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선중심의 미술에 좀 더 풍부한 표현력과 색채감을 키울 수 있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들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나 이러한 교육내용을 도입한 것에 대한 '편찬취의서' 등의 자료가 현재에도 남아 있다.

공작(工作)은 입체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력을 키워줄 수 있으나 일제강점기때 도입된 공작교과서에는 비행기나 탱크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어, 전시체제 하에서는 교육적 소재마저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과서, 당대 혼란상 반영

한국전쟁으로 나라가 전란에 휩싸였음에도 교육은 지속됐으며, 이러한 혼란한 시대상은 교과서 삽화 이미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전쟁이 한창이었던 1952년에 발행된 '도화공부 초등미술4'에서는 피난민의 모습, 시가전을 벌이거나 강을 건너 돌진하는 군인들의 모습이 사용되고 있다.